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주일오전설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성경본문] 에베소서 5:26-27

본문은 25절에 언급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것을 위해 자신을 주신 목적을 말한다. 한글개역성경에는 26절 처음에 ‘이는’이라는 말이 한 번만 나오지만, 원문에는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세 번 나온다. (1) “이는 그가 그것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라.” (2) “(이는) 그가 그것을 자신 앞에 영광스러운^{존귀한}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3) “(이는) 그것이[교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요약하면,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의 한 목표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의 목표이다. 범죄하고 타락하여 멸망할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신 것은 죄 없고 깨끗한 교회, 흠과 결함이 없는 교회, 즉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개인의 거룩함뿐 아니라, 또한 그들의 모임인 교회의 거룩함을 의미한다. 교회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과 모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사람들의 범죄로 변질되고 악화되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범죄함으로 인해 ‘만물보다 거저되고 심히 부패한’ 존재가 되었고 심히 사악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범죄하기 전부터 그 사실을 아셨고 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목표를 정하셨다. 그는 인류 가운데서 구원하실 자들을 택하시고 구별하셨다. 그 목표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이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목표는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 죄를 짊어지셨다.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하였던 요한은 “보

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라고 말하였었다(요 1:29). 예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人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셨다(마 20:28).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혹은 대속사역이라고 말한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기의 모든 죄를 씻음 받는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고 말씀하셨고(요 15:3)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다(요 13:10).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중생(重生)의 씻음이다. 바울은 디모데 3:4-5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말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이다. 고린도전 1:2,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하여졌고(완료분사)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고린도전서 6:9-11,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동성애자]나 남색하는 자[동성애자]나 도적이거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씻음받았고 거룩함과 거룩해졌고(과거형)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0:10,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완료분사).” 이것이 법적인 거룩이다.

또 사도 바울이 밝히 증거한 칭의(稱義)[의롭다 하심]의 진리는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다. 로마서 3:21-24,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

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救贖)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진리는 신약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이 목표, 즉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설립은 모든 믿는 자들과 그들의 연합과 모임인 교회에서 이미 성취되었다. 그것이 앞에서 말한 법적인 거룩과 칭의의 진리이다.

그러나, 비록 이 거룩과 의가 법적으로는 성취되었지만, 우리는 그 거룩과 의를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내어야 한다. 이것이 개인의 영적 성장과 성화(聖化)이며 바른 교회의 건립이다.

에베소서 4:11-13,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골로새서 1:28-29,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디모데후서 3:16-17,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도 우리의 온전함에 있다.

거룩과 의를 어떻게 실제로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은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룰 수 있다. 우리들의 모습은 항상 불완전하고 흠과 부족이 있고 실수와 연약이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첫째,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의 용서도 기대할 수 있다.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회개치 않은 자들을 위해 남아 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은 회개치 않은 자들을 위해 남아 있다(사 1:15-20; 마 3:8-10; 눅 13:3).

둘째, 죄악은 누룩과 같아서 내버려두면 온 덩이에 퍼진다(고전 5:6). 그러므로 개인은 작은 죄라도 회개

해야 하고 교회는 작은 오류라도 제거해야 한다.

셋째, 우리는 특히 선하고 온전한 삶을 이루어야 한다. 구원받은 성도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마 5:39-44, 48).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갈 5:22-23). 에베소서 4:29-32,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救贖)[몸의 부활]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지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야고보서 3:13-18,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거슬러]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성도는 선해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의 목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개인들과 그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이미 법적으로 성취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거룩함을 실제로 나타내어야 한다. 우리는 어제의 모든 부족과 연약을 버리고 성화를 이루어 선한 자들이 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

주일오후설교

순수한 종교

[레위기 19:19]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규례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교훈이 하나님의 규례, 곧 하나님께서 주시고 정하시고 세우신 규례들을 강조하시며 그것을 지키라고 명하셨다.

하나님께서, 첫째로, “네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가축들의 이종교합(異

種交合)을 금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수나귀와 암말의 교합으로 노새를 낳게 하는, 사람들의 오래된 관습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혼잡케 하는 일이다. 수노새가 생식력이 없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혼잡을 인정치 않으신다는 단적인 증거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또,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밭에 씨를 뿌릴 때, 벼와 보리, 밀과 수수를 섞어 뿌리는 것을 금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식물들도 각각의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각각의 종류대로 재배되고 추수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께서서는 또한, “두 재료로 직조(織造)한 옷을 입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예를 들면, 아마포(리넨)와 양모, 혹은 면사와 명주실로 섞어 만든 옷 같은 것을 입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오늘날에는 섞어 짠 천으로 만든 혼방 옷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율법에서 이런 옷을 입는 것을 금지하셨다.

위의 규례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질서를 혼잡케 하지 말라는 뜻이 있다. 이 규례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들과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상들을 혼합시키는 혼잡주의 즉 오늘날 말로 종교다원주의를 금하는 영적 교훈을 준다고 본다.

[20-22절] 무릇 아직 속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정혼한 씨종과 사람이 행음하면 두 사람이 형벌은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은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음이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를 곧 속건제 솟앙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솟앙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의 범한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여종과의 행음의 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한 여종이 어떤 사람과 약혼하였으나 아직 속량되거나 자유롭게 되지 못한 상태에서 주인이 그와 행음하면, 그들이 벌을 받을 것이지만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 여종이 아직 자유케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규정이다. 그러나 그 주인은 솟앙을 속건제물로 삼고 그것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와야 하며 제사장은 그의 범한 죄를 위해 그 속건제의 솟앙을 드려 여호와 앞에 속죄해야 하고 그리하면 그의 범한 죄가 사함을 얻을 수 있었다.

[23-25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

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난 곡물(穀物)을 먹게 하셨다. 그들이 길갈에 진 치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그들은 유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 즉 무교병과 볏은 곡식을 먹었다(수 5:10-11). 곡식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 허락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과일나무를 심을 때는 3년 동안 할례받지 못한 나무로 간주하여 그 과일을 먹지 말고 제4년에는 그 과일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고 제5년부터 그 과일을 먹으라고 규정하셨다. 과일은 필수적인 식단은 아니었다고 본다.

이것은 가나안 땅으로부터의 성별을 교훈하신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거기에 사는 거민들과 모든 기축들을 다 죽이게 명하셨다. 그런 정신에서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의 나무들의 과일들도 다 버려야 마땅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3년의 기간을 주셨던 것이다. 이 규례는 가나안 땅의 과일나무들이 성별되어야 함을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 구별된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다.

[26절]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복술을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

하나님께서서는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 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레위기 17:12, 14에서 이미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노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서는 또, “[너희는] 복술을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라”고 말씀하셨다. ‘복술을 하다’는 원어(나키쉬)는 ‘점을 치다’는 뜻이고, ‘술수를 하다’는 원어(아난)는 ‘예언하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악령들의 활동으로 점을 치거나 예언을 하는 등의 신비적 행위를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이다. 거짓된 신비주의는 참된 경건을 떠나게 한다. 이것은 신약시대에도 적용되는 교훈이다.

[27-28절]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बे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머리 가를 둥글게 깎고 수염 끝을 손상시키는 것은 그 당시 이방인들의 풍습이었고 죽은 자를 위해 살을 베고 몸에 무늬를 놓은 것, 즉 문신을 새기는 것도 당시 이방인들의 죽은 자에 대한 애도의 행위와 풍습이었다고 한다(Harrison).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의 그런 풍습들을 본받지 말기를 원하셨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진리의 혼잡을 조심하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종류의 가축들 간의 교합이나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는 것을 금하셨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도 입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질서를 혼잡케 말리는 뜻을 가지는 동시에, 참된 종교를 이방종교와 혼합시키지 말라는 뜻도 있다고 본다. 우리는 기독교와 이방종교를 혼합시키지 말아야 하고,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보수하며, 기독교를 이방종교와 혼합하여 변질시킨 천주교회와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배격해야 하고 또 오늘날 각종 이단사설들을 배척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거짓된 신비주의를 조심하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복술을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라”고 말씀하신다. 그는 악령의 활동으로 점을 치거나 무당의 예언을 듣는 거짓된 신비적 행위를 금하신다. 신약성경도 우리에게 거짓된 신비주의를 경계한다(마 24:24; 계 13:13, 15; 살후 2:9-12). 우리는 오늘날 초자연적 은사들을 추구하여 방언과 예언과 병고침을 강조하며 기적을 행한다고 주장하는 은사주의자들과 신사도운동가들의 거짓된 말들과 허풍들을 매우 경계해야 하고, 오직 성경의 바른 교리를 배우고 믿고 생활교훈을 실천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세상 문화를 조심하자. 하나님께서는 머리 가를 둥글게 깎는 것이든지 수염 끝을 손상시키는 것이든지 죽은 자를 위해 살을 베거나 문신을 새기는 것을 금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셨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문화를 조심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많이 파진 옷과 매우 짧은 치마를 입고 시끄럽고 광란적이고 음란성이 있는 노래들도 듣고 부르고 춤도 추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런 풍조를 배격하고 멀리해야 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야 한다.

수요설교

신부의 아름다움

[아가 4:1-6]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네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네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네 뺨는 석류 한 쪽 같구나. 네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노루 새끼 같구나.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몰약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본문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묘사한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신부의 눈은 비둘기 같고 그 머리털은 아름답다고 묘사된다. 교회는 온유하고 순결한 목사를 인도자로 세우고 성도들도 온유하고 순결한 마음을 간직해야 한다. 또 교회는 거룩함과 순종함으로 단장해야 한다.

신부의 이는 가지런하고 희고 깨끗하다고 묘사된다. 이상적 교회는 목사가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목사를 가진 교회이다. 좋은 목사는 양무리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이상적 교회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일 것이다. 교회의 목사도,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잘 음미해야 할 것이다.

신부의 입술과 입은 붉고 예쁘며 그 뺨는 석류 한 쪽 같다고 묘사된다. 성도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서 선하고 덕스러워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을 만방에 전파해야 하며, 또 우리에게 어떤 실수와 부족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고쳐야 한다.

신부의 목은 방패가 달린 망대와 같다고 묘사된다. 그것은 성도들의 믿음을 상징하는 것 같다. 성도들의 복음 신앙은 머리되신 그리스도와 그 자신을 연합시킨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일천 방패와 같다.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지상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견고한 망대와 같은 목 곧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자.

신부의 유방도 아기들을 먹일 만한 좋은 유방으로 묘사된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이 어린 신자들을 양육한다. 목사들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도들도 서로 권면하고 위로할 때 교회는 튼튼하게 성장할 것이다.

날이 새고 그림자가 갈 때가 올 것이다. 구약시대가 지나고 신약시대가 왔으며, 고난의 세상이 지나고 영광과 안식의 새 세계가 올 것이다. 우리는 천국을 대망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한다. 주께서는 피흘려 사신 교회 안에 성령으로 이미 오셨고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요 14:16-18; 마 28:20).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 우리는 완전한 교회답게 주의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